

# 배우 김래원·공효진 ‘로코킹+퀸’ 굳힐까

16년만에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서 재회



배우 강기영(왼쪽부터), 공효진, 김래원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압구정점에서 열린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가장 보통의 연애’는 전 여친에 상처받은 재훈(김래원 분)과 전 남친에 뒤통수 맞은 선영(공효진 분), 이제 막 이별한 두 남녀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현실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멜로와 로맨스에서 타월한 능력을 보여준 배우 김래원과 공효진이 16년 만에 영화에서 재회했다. 두 사람은 ‘로코킹’과 ‘로코퀸’이라는 수식어를 다시 한 번 입증해 보일 수 있을까.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 CGV에서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김한결 감독)의 제작보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래원과 공효진, 강기영, 김한결 감독이 참석했다.

‘가장 보통의 연애’는 전 여친에 상처받은 재훈, 남친과 뒤통수 맞은 선영, 이제 막 이별한 두 남녀의 거칠고 솔직한 현실 로맨스를 그린 영화다.

이날 김한결 감독은 사랑에 보편적인 부분이 있다며 “결국 사랑 그 자체인 것 같다. 그런 것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가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여서 사람들이 보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주된 목적이었다. 웃으면서 위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또한 “배우분들이 너무 잘해주셨다. 편집본을 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다. 얼마나 이분들이 답답했을까? 웃긴 장면인데 더 놀게 해드렸어야 하는데 못했다 하는 죄책감을 갖고 있다. 이 자리 를 빌어서 인사하고 싶다. 감사 하다”고 배우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김래원이 미련에 허우적대는 깨칠한 후회남 재훈 역을, 공효진이 사랑에 환상을 갖지 않는 돌직구 현실파 선영 역을 맡았다. 또 강기영이 재훈의 직장 동료 병철 역을 맡았다.

김래원과 공효진은 MBC 드라마 ‘눈사람’(2003) 이후 16년 만에 만났다. 김래원은 “처음부터 공효진과 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었다”면서 “공효진과 같이 하면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다. 그 정도로 시나리오 봤을 때 공효진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고 공효진과의 재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공효진은 “되게 까칠한 여자인데 왜 내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다”며 농담을 던진 후 “나도 래원씨의 아름다고 카리스마 넘치는 상남자 모습 말고, 영화에서의 특장기가 있다. 귀여운 모

습이다. 그런 모습이 또 그리웠는데 이번에 혹시 다시 그런 연기를 하려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하게 됐다”고 화답했다.

또 공효진은 “(김래원과 재회를) 기대했었다. 원래 아는 사이니까, 진짜 16년 동안 빈 적이 없어서 그런데 다른 작품할 때 몇 번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데 매번 연이 달지 않았고 이번에 만나려고 그랬나 싶더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내 영화 속에서도, 실제로도 성격이 맞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해 웃음을 줬다. 시작은 김래원이었다. 김래원은 “공효진과 영화 안에서는 안 맞는다. 성격 차이가 많고 그래서 티격태격 하는 차이가 재밌다”고 운을 뗐다.

이에 공효진은 “현실에서도 사실은 성격이 안 맞는다”면서 “그게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보시고 기대하시면 된다”고 밝혀 웃음을 줬고, 김래원은 다시 “정말 그대로 나온 부분이 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저희가 자연스러울 수 있게, 기영씨가 많이 도와줬다”고 덧붙였다.

16년 전을 회상할 수 있는 질문들도 나왔다. 김래원은 공효진에 대해 “16년 전에도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훌륭했다. 이번에도 새삼 독창성이 있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놀랐고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칭찬했다.

공효진 역시 “16년 전에는 많이 지금보다 어렸고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는 게 뽐낼 때였던 것 같다. 둘다 그랬다. 그때 너무 바쁘고 정신 없고 생각할 게 많은 시기였다”며 “내내 못 보다 16년 만에 봤을 때 요 근래 작품을 보면서 래원씨 꼭 다시 연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만났을 때 눈사람 때 다른 캐릭터를 제 앞에서 연기하는 거여서 새롭고 멋있었다”고 했다.

한편 ‘가장 보통의 연애’는 10월 초 개봉 예정이다.

## 정우성·이하늬,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 맡는다

내달 3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서 개막식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정우성과 이하늬가 선정됐다.

BIFF 조직위는 꾸준한 작품활동으로 연기 도전을 멈추지 않는 배우 정우성과 최근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개성 넘치는 연기로 사랑을 받고 있는 이하늬가 영화제 사회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데뷔 25년차인 정우성은 1994년 영화 ‘구미호’로 연기를 시작했으며, 영화 ‘비트(1997)’를 통해 청춘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영화 ‘내 머리속의 지우개(2004)’,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 ‘아수라(2016)’, ‘강철비(2017)’부터 드라마 ‘아테나: 전

쟁의 여신(2010)’, ‘빠담빠담(2011)’ 등 왕성한 연기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작 ‘증인(2019)’에서는 변호사 ‘순호’로 진정성 있는 연기를 펼쳐 제55회 백상예술대상과 제39회 황금촬영상 시상식에서 각각 영화대상과 연기대상을 받았다.

이하늬는 2006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 ‘상어(2013)’, 영화 ‘연가시(2012)’, ‘타짜-신의 손(2014)’, ‘부라더(2017)’ 등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를 넘나들며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2017년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으로 코리아드라마어워



즈 여자 최우수상과 MBC 연기대상 월화극 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영화 ‘극한직업(2019)’으로 천만배우에 이름을 올렸고, 드라마 ‘열혈사제(2019)’를 통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3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아외극장에서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열린다.

## ‘라스’ 하차 윤종신, 뒤풀이 현장 공개 “마지막 녹화 잘마쳤어”



윤종신이 ‘라디오스타’ 뒤풀이 현장을 공개했다.

5일 윤종신은 자신의 SNS에 “마지막 녹화 잘 마쳤습니다. 국진 이형, 구라, 영미, 정환, 태현, 세윤, 규현, 희철, 신동 등 함께했던 모든 MC들, 그리고 PD, 작가, 관계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저희와 얘기 나눠 주신 1000분이 훨씬 넘는 게스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웠고 고마웠어요. Goodbye Radio Star”라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사진 여러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윤종신과 제작진, MC들의 뒤풀이 현장

이 담겼다. 특히 윤종신은 제작진이 준비한 케이크 앞에서 활짝 웃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윤종신은 방송 중단을 선언하며 10월 해외 출국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방송 활동 중단의 뜻을 알렸다.

이에 윤종신은 12년 동안 출연해온 MBC ‘라디오스타’와도 작별하게 됐다. 그는 4일 마지막 녹화를 마쳤으며, 이 녹화분은 11일 전파를 탄다. 윤종신의 빈자리는 당분간 스페셜 MC가 채운다.

뉴스1

## 악동뮤지션, 2년2개월 만에 컴백

### 이찬혁 군 제대 후 처음

악동뮤지션 돌아온다.

악동뮤지션은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SUMMER EPISODE’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새 음악으로 팬들을 찾는다.

YG엔터테인먼트는 5일 오전 10시 공식 블로그에 악동뮤지션의 컴백을 알리는 첫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악동뮤지션은 이찬혁이 해병

대에서 군 복무를 하며 2년 간의

기존 로고와 달라진 느낌의 악

기간 동안 KBS Cool FM ‘악동 뮤지션 수현의 불亂을 높여요’ DJ를 맡아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 외에도 JTBC ‘슈퍼밴드’ 심사위원으로 활약했고, ‘비긴어게인3’에 출연해 한층 성숙해진 음악적 면모를 뽐냈다.

악동뮤지션은 2012년 SBS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시즌2’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YG엔터테인먼트에 둘지를 틀었다. 이후 ‘200%’ ‘Give Love’ ‘오랜 날 오랜 밤’ ‘다이너소어’ 등 참신한 가사와 재치 있는 멜로디의 곡들로 사랑받았다.

뉴스1

#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국악 향나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 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